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사이언스 코리아’ 만이 우리의 살길”

글 | 류통은 _ 기자 teryu@kofst.or.kr

▶ 지난해 ‘맑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자’로 선정되는 등 평소 연구와 더불어 과학문화 대중화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계신데요, 과학 대중화에 천문학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 천문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원장님의 지론을 듣고 싶습니다.

천문학은 청소년과 시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과학대중화에 유리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한국천문연구원은 과학대중화에 큰 기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정보센터에서는 일·월 식과 같은 천문현상을 예보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책력을 연구합니다. 즉 우리 나라 달력은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하는 월력요항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올해 설날인 1월 29일이 일부 휴대전화나 달력에서 1월 30일로 잘못 표기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설날 사건’은 일부 잘못된 만세력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의 적극적인 홍보로 큰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지요.

▶ 한국천문연구원이 과학 대중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천문연구원은 ‘국립천문대’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천문업무’가 원래 있습니다. 제가 원장이 되기 전에 출범시킨 교사전문연수, 별 축제, 천체사진공모전 등의 행사들은 매년 개최되어 한국천문연구원이 간판으로 내걸 수 있는 대국민 사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별 홍보대사를 임명하여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행사인 ‘2006 대한민국 별 축제’가 과학의 달인 4월 전국에서 열립니다. 대전 행사의 경우는 이미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힘을 모아 대규모 별 축제를 열기로 뜻을 모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는 4월 8일(토)과 9일(일) 엑스포과학공원 인근에서 열립니다.

5월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든 고려말 천문학자 유방택을 기리는 행사를 충남 서산에서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면 대여섯 가지 행사가 여름방학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www.kasi.re.kr)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원장 취임 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사이언스 코리아 핵심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경영 포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경영 철학과 함께 그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 경영철학 중 하나가 ‘글로벌 KASI’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사회에서 고질적인 보수적 경



향 탈피와 한국천문연구원의 국제화를 위해 연구 전담부서인 국제천체물리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초연구의 척도가 되는 SCI 논문이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44.2%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이언스 코리아 KASI’도 제 경영철학 중 하나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을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선봉에 우뚝 세우기 위해 대국민 천문사업 전담부서인 천문정보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의 매주 보도자료가 생성될 정도로 활발히 움직이

대한민국 별 축제
위 : 서귀포에서 개최한 화성축제(강연을 듣고 있는 서귀포 시민)
아래 : 서귀포에서 개최한 화성축제(화성관측을 하고 있는 서귀포 시민)



태양을 관측하고 있는 교사들

게 되었고, 부수적으로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같은 '사이언스 서포터' 들을 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시민천문대들의 건립에도 기획 단계부터 관여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KASI' 입니다. 지난 2005년을 돌이켜보면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혁신의 파도 속에서 과학기술계는 물론 온 나라가 생존의 몸부림을 했던 한해였습니다. 신임 원장으로 작년 5월에 취임한 저는, 과거에 집착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조직, 아집이나 불평 같은 내부의 적을 제거하지 못하는 조직, 낙약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영자를 가진 조직은 성장단계 진입에 실패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한국천문연구원의 비전과 장기 발전 계획은.**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천문대' 와 '한국우주과학연구소' 두 기관이 합쳐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입니다. 하지만 한국천문연구원은 현재 일본국립천문대 인원의 3분의 1, 예산은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일본우주과학연구소는 논외로 해도 말이지요.

따라서 KASI가 나아갈 길은 자명합니다. 기관을 부지런히 키워서 '한국천문대' 와 '한국우주과학연

‘사이언스

연구소' 두 기관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선 현장의 과학자로서 느끼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현재 과학기술의 축은 크게 봤을 때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축은 특성과 역할이 확연히 다릅니다. 과학기술인들은 자기의 개성에 더 잘 맞는 곳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대학의 정년은 65세인데 반해 연구소의 정년은 61세입니다. 대학은 연금이 보장되어 있는데 반해 연구소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학과 연구소의 환경을 비슷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장님께서는 대표적인 부부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성과학자에 대한 정책 또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입니다. 남성과 똑같거나 월등한 기량을 지닌 여성 과학자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스 코리아'

면 그 나라는 한심한 후진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천문연구원 안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국천문연구원의 여성인력채용 목표가 1명이었는데 2명을 뽑았으니 200% 달성한 셈입니다(웃음).

여성들 또한 '나는 여자니까 과학은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화여대에 있는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 초청강연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여성분들이 과학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성들도 과감히 과학기술에 도전할 때입니다.

▶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포부와 함께 평소 과학기술계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개인적인 포부가 있다면 우리 민족이 '우주민족'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이 출범시킨 '사이언스 서포터'가 과학기술 모든 분야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이 마치 과학문화재단의 한 행사처럼 알려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계가 '사이언스 코리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세분화하여 '스페이스 코리아', '바이오 코리아'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과학기술중심사



회' 같은 구호보다 더 직관적이고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7

전파천문대에서 전파망원경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교사들

한국인 '블랙홀 박사' 1호 박석재 원장

지난해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박석재 박사는 서울대 자연대 천문학 과를 졸업 후 미국 텍사스대 대학원 천문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역시 이곳에서 박사 후 과정을 거쳤다. 박 원장은 블랙홀과 블랙홀로 빨려드는 주변 물질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델을 제시해 박사학위를 따낸 한국인 블랙홀 박사 1호이다.

박 원장은 아마추어 천문학 발전을 위해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를 결성하고, 교사들에게 올바른 천문학 지식과 최신의 천문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교사 천문연수 사업을 주도해 왔다. 또한, 대전시를 설득해 대전시민천문대(2001년)를 세우는 데 앞장섰고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였던 외계인 곰돌이를 되살리는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일반인의 우주여행을 돕는 책을 많이 내고, 2천 명이 넘는 공무원, 5천 명이 넘는 교사, 2만 명이 넘는 학생 등에게 천문학 강의를 했으며, 국정브리핑에 '박석재의 천문 칼럼'을 연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서로는 '재미있는 천문학 여행', '블랙홀이 불쑥불쑥', '해와 달과 별이 뜨고 지는 원리', '스티븐 호킹의 새로운 블랙홀', '우주를 즐기는 지름길', '코리아 안 페스트' 등이 있다.